

전북농협, '아침밥 먹기 운동' 캠페인 협약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녹색어머니회, 아침밥 먹기 운동 릴레이 체결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은 지난 26일 농협전북본부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최정열), 전북특별자치도녹색어머니회(회장 이건희)와 함께 균형된 식생활 습관으로 건강을 증진하고 쌀 소비 촉진을 도모코자 아침밥 먹기 운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농협은 지난해 전체 쌀 생산량의 54%에 해당하는 사상 최대 200만톤을 매입하여 농가소득 지지와 쌀산업 유지를 위해 힘써왔으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역대 최소인 56.4kg로 관련 통계 작성이후 지속적인 쌀 소비 감소와 수급불균형에 따른 쌀값 하락으로 쌀 산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아침밥을 먹지 않는 사람의 지속적인 증가는 국민 건강증진과 건전한 쌀 소비문화 정착에 큰 걸림돌이



전북농협은 지난 26일 농협전북본부에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녹색어머니회와 함께 균형된 식생활 습관으로 건강을 증진하고 쌀 소비 촉진을 도모코자 아침밥 먹기 운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되고 있다. 실제 밥의 주성분인 탄수화물은 3배 정도 영양소중 하나인 에너지원으로 아침

밥을 먹으면 포도당을 섭취해 두뇌활동이 활성화되어 기억력과 집중력 등 학습능력이 향상되고, 규칙적인 아침

식사를 통한 대장 운동 활성화로 변비 해소에도 도움이 되며, 과식과 폭식을 막아 비만 예방과 면역력 강화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날 협약식의 주요내용은 학생의 균형된 식생활 습관 형성 지원과 전북도민 아침밥 먹기 운동 상호 협력 및 각종 행사 시 기념품 등에 전북에서 생산된 쌀 가공제품 적극 사용, 쌀 산업 기반 유지와 건전한 쌀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 및 캠페인 협력 등을 담고 있다.

김영일 본부장은 "아침밥 먹기 운동을 통해 사라져가는 가족간 동료간 밥상머리 미학(米學)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농협은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국민의 식생활 문화 개선과 쌀 소비촉진을 위한 전북도민 아침밥 먹기 릴레이 운동을 지자체, 학교, 각종 사회단체 등과 전사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기자



한전 전북본부와 서부지방산림청은 한전 전북본부에서 '산불예방 및 전력설비 보호'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산불예방·전력설비 보호' 협약

한전 전북본부, 서부지방산림청과 체결

한전 전북본부(본부장 연원섭)와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정철호)은 지난 26일 한전 전북본부에서 '산불예방 및 전력설비 보호'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전 전북본부와 서부지방산림청은 산림 보호 및 산불 대응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전력설비의 안정적 운영과 산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따라 산불이 대형화되고 빈번하게 발생하여 산림지역에 위치한 전력설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전북지역 내 최근 5년간 산불은 연평균 32.4건 발생하였으며, 송전선로 인근으로 산불이 확산될 경

우 송전선로 고장 등 안정적 전력 공급에 차질을 일으킬 수 있다.

전북 면적의 55%가 산지로 구성되어 있고 송전철탄의 57%인 약 1,700여기가 산지를 통과하고 있는 여건을 감안할 때, 한전 전북본부와 서부지방산림청의 이번 업무협약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산불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전력설비의 안정적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원섭 한전 전북본부장은 "향후 산림청과 실무협의를 구성하여 협력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건강하고 안전한 산림생태계 구현과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옥기기자

새만금청,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매뉴얼' 수립 공개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 이하 새만금청)은 새만금지역의 공동주택 건설에 대비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매뉴얼'을 수립하여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 매뉴얼은 주택건설 인허가에 필요한 관계 법령, 심의 절차 검토 유의 사항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을 상세히 담고 있다.

실제지들은 이 매뉴얼을 활용해 사업계획 승인신청-착공-분양-사용감사 등 각 단계에서 신청 도서의 적합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다.

새만금청은 인허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매뉴얼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사업주체와 건축사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새만금청은 새만금에 건립되는 공동주택이 문화·여가 공간과 생활 편의 시설 등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자연 친화적인 주거 공간이 되도록 건축심의 기준을 올해 하반기에 제정할 계획이다

정인권 기획조정관은 "건축심의 기준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 새만금 지역에 우수한 수준의 정주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만호기자

중기중앙회, '베트남 타잉화성 비즈니스·투자 세미나' 개최

베트남·타잉화성 진출전략... 투자진출 사례발표 등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베트남 타잉화성, 주한베트남대사관과 공동으로 지난 26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베트남 타잉화성 비즈니스·투자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베트남 및 타잉화성 진출전략과 함께 한국전력의 실제 투자진출 사례 발표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

책본부장 △도 민 푸안 타잉화성 인민위원장 △부 호 주한베트남대사를 비롯한 타잉화성 대표단과 국내 기업인 100여 명이 참석했다.

타잉화성은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150km 떨어진 북중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육상 해상 항공 등 교통이 편리하고 하노이 호치민 시에 이어 인구가 세 번째로 많은 지역으로 양질의 노동력 확보가 가능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해외투자 유치와 기업친화적 행정으로 한국기업의 진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지역이다.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의 88.7%가 중소기업이며 중소기업 글로벌화를 위해 타잉화성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에 중소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농어촌공사 전북본부, 재난대응시설 긴급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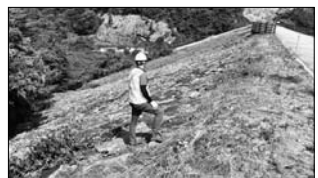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장마가 끝나고 다가오는 태풍 발생시기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재난대응시설을 긴급점검하는 등 태풍 대비태세로 전환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올해 장마는 6월 22일부터 시작하여 전북지역 평균 강수량 425mm(평년대비 138%), 최대 시간당 104mm(익산 합라) 등 기록적인 비를 내렸으나, 전북지역본부는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가동하고 철저히 대응하며, 주요시설물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오랜 장마로 지반이 연약해져 있어 급경사지 및 저수지 등 이상 유무를 긴급점검 실시했다

또한 3호 태풍 개미가 대만, 필리핀에 기록적인 폭우, 강풍으로 많은 인명피해 발생 등 큰 피해를 주고 북상, 최근 4호 태풍도 발생하는 등 본격적 한반도 태풍 상륙이 예상되고 있다.

전북지역본부는 태풍대비하여 공사에서 관리하는 40개 저수지 제한수위 이하로 사전방류하고, 전체 87개 배수장을 긴급점검하는 등 선제적 태풍대비에 만전을 기했다

이울러 저수지 사전방류를 필요한 수위조절수문, 사이펀 설치, 방류수로 정비 등 사전방류 관련 기반시설을 단



계적으로 정비 저수지의 안정적인 재해대비 기능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문 본부장은 "장마 집중호우로 오랜 기간 가동한 배수장 등을 재정비하여 다가오는 태풍에 대비하는 등 재난관리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기자

전북환경청, 고속도로 화학사고 예방 화학안전 캠페인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송호석)은 지난 26일 순천-완주고속도로 오수휴게소(상·하행선)에서 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와 함께 화학물질 운반차량 안전운행 캠페인을 실시했다.

순천-완주고속도로는 석유화학 기업이 다수 위치한 여수·광안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통로로 화학물질의 이동량이 많고, 도내에서 운송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도로이다.

이날 캠페인은 고속도로 휴게소 내 홍보부스에서 화학물질 운반차량 운전자에게 안전운행 수칙과 화학사고 발생시 대응 요령 등을 직접 안내하고 운반차량에 사고예방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으로 진행했다.

그간 전북청은 운반차량 예방과 신속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관내 11개 탱크로리를 대상으로 고무라이닝 검사 지원 및 유출사고 비상대응 키트를 배포하였다.



작년에는 순천-완주고속도로 동진주·북남원 나들목에는 화학물질 비상 방재장비함을 설치하여 화학사고 발생시 방재물품(보호복, 흡착포, 모래주머니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경철 화학안전관리단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화학물질 운반차량의 안전운행 의식이 생활화되어 도로 위 화학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